

# “그림책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전세계 그림책을 만나는 '제비책방' 전시가 오는 27일까지 광주 양림동 갤러리 포도나무에서 열린다.

## 갤러리 포도나무 '제비책방' 기획전 볼로냐 수상작, 국내외 출판사 서적 아티스트 북 전시...현장구매 가능 어린이날 100주년 연중 그림책전 기획

‘환상적인 그림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한옥을 개조한 양림동 갤러리 포도나무(백서로 79-1) 앞면 며칠 전부터 작은 간판 하나가 더 놓여 있다. '제비책방'. 오는 27일까지 문을 여는 팝업서점이다. 북큐레이터 제비(정하연)가 소개하는 책 150여권이 전시된 책방에서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가드닝, 음식, 여행 등 다채로운 책들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봄, 포도나무 안길 제비동지 아래 뒷마루에 앉아 있던 그는 갤러리 주인장에게서 "제비 오는 봄에 제비가 제비책방 열아볼래요?"라는 제안을 받고 서점을 열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 '제비'가 전하는 책방 안 내서는 이렇다. "자연스럽게, 책방에 들르는 분들이 그 날 본인의 기분에 따라 눈이 머무는 지점에서 편안히 책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중 어느 그림이 문득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을 만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좀 더 깊이 들여다 보고 싶은 이들은 출판사별로 특유의 종이질감, 색깔, 제본방식 등을 비교하고 작가들 각자의 특징을 탐구해 보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담한 갤러리 공간에 진열된 그림책들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그 어느 것을 빼어 들여도 한참을 들여다 보게 만든다. 아름다운 그림, 따뜻한 글, 다양한 상징으로 넘쳐나는 책들은 멋진 '만들새'와 어울려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책방에서는 '그림책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내외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들을 비롯해 초방책방과 재미마주, 향출판사, 움직씨출판사를 비롯해 타라박스(인도), 꼬라이니출판사(이탈리아), 마법에 걸린 사자책방(미국) 등 국내외 출판사 나이젤 피크, 이수지, 김성희 등 인기 작가, 세미콜론출판사의 그래픽노블, 독립출판물, 아티스트북과 원화를 만날 수 있다. 전시작들은 모두 현장 구매 가능하다.

1. 프랑스 메모출판사 그림책.
2. 2013 볼로냐 라가치 수상 박선미 작가 '가시산'.
3. 2021 볼로냐 라가치 대상 수상작 '모모모모'와 작품 원화.

지난해 볼로냐 라가치 대상을 수상한 박교 작가의 '모모모모'는 눈에 심어진 모가 삶이 돼 밭상에 놓이기까지의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프랑스 메모출판사의 스무 권에 달하는 그림책 컬렉션은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듯하고, 프랑스 그래픽 디자이너 파넬트 멜리에의 손바닥보다 작은 책들도 눈길을 끈다. 또 2013년 볼로냐 라가치 수상작으로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컬렉션인 박선미 작가의 '가시산'은 실제 산을 오르듯, 한 장 한 장씩 넘기는 구조로 제본했으며 김윤이 작가의 '북한산 푸른 숲', 등도 인상적이다.

'제비책방'은 "그림책은 세상을 담은 그릇이며, 세상이 함께하는 마을입니다. 그림책은 어린이와 어른을 만나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모으는 친구입니다"라고 말했던 고(故) 신경숙 초방책방 대표와 제비의 인연으로 만들어졌다. 신 대표가 권유했던 '그림책 100선'을 늘 맘에 품고 있었던 제비는 '어쩌다 제비 팝업 책방'을 통해 서울 계동의 잣집 다름, 남원 달팽이 한옥게스트 하우스에서 책방을 열었다.

이번 기획은 갤러리 포도나무가 올 1년 내내 지속할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 전시 중 하나다. 갤러리 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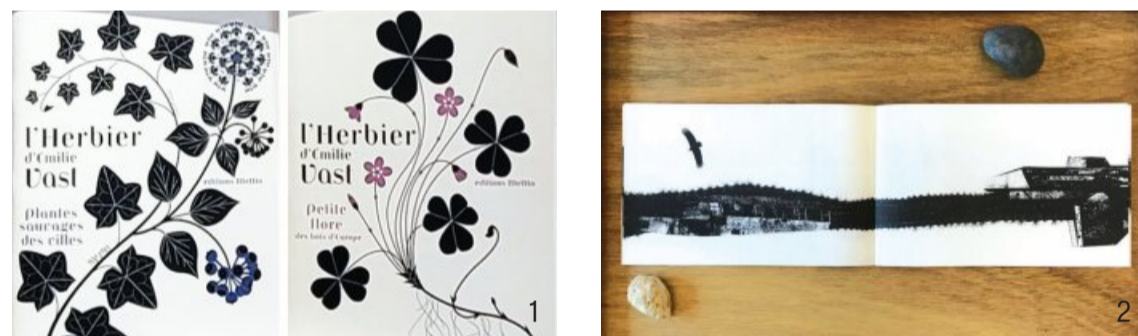
정현주 독립큐레이터는 국제아동청소년도서관협의회(IBBY) 학술지에 발표한 그림책과 어린이 문학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며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연중 전시를 준비했다.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이기도 하다.

"그림책은 공간적 표현인 그림과 시간적 표현인 글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전통적인 문학이나 회화와는 다르면서도 독특한 서사를 구축할 수 있는 분야"('그림책을 보는 눈' 중)라는 말이 있다. 갤러리 포도나무는 이번 기획을 통해 다양한 그림책을 소개하고 예술로서의 그림책의 지위를 가늠해 보려한다.

4월에는 김세희 작가를 초대해 대만과 일본 여행 관련 작품을 전시하며 이후 '이상한 꼬임에 빠진 엘리스' 등 출판사 '향'에서 발간한 그림책 작가들과 함께하는 전시를 기획중이다. 또 김윤이 작가 초대전과 스위스 NGO팀과 함께하는 전시 등도 예정돼 있다.

전시 책 목록은 제비책방 아카이브 인스타그램(@jebi\_books)에서 만날 수 있다. 오픈 시간 수-일요일 오전11시-오후 6시. 문의 062-655-79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피아니스트 이혁 봄날의 협주곡

###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4월 8일 전남대 민주마루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피아니스트 이혁(사진)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905년'가 오는 4월 8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1번 1905년'을 선보인다.

첫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이혁의 협연으로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1번 G단조'를 연주한다. 멘델스존의 여러 협주곡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작품으로 화려한 기교와 낭만을 갖춘 봄날의 포근하면서도 유쾌한 협주곡이다.

이혁은 현재 차이콥스키 음악원 재학 중으로 2021년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연주자로 유일하게 결승에 진출했고 그 해 12

월 파리 아카데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이어 러시아 혁명의 계기가 된 '1905년 피의 일요일 사건'을 음악으로 표현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1번'을 들려준다. 러시아 민중들의 고통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전쟁 속 총소리와 폭발적 광음, 폐허 속 신음하는 민중의 모습 등이 떠오르는 곡이다. 이 곡을 통해 억압된 사회에서 끊임없이 음악을 통해 자유를 외쳤던 쇼스타코비치의 철학과 정신을 만날 수 있다.

한편 광주시향은 이 프로그램으로 오는 4월 13일 예술의전당 2022 교향악축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문의 062-524-508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신혜령 박하연 이해진 박민지 장다은

##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신인음악회

### 1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신혜령·박하연 등 5명

광주피아노아카데미 2022 신인음악회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난 1990년 창립된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지역 대학 교육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으로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와 유명 피아니스트 초청연주회, 세미나를 열고 있다. 특히 매년 새로운 피아니스트를 발굴하는 신인음악회를 통해 지역 출신 젊은 음악가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번 신인음악회 출연자는 신혜령(전남대 음악학과 졸업), 박하연(호남신학대 음

악학과 졸업), 이해진(이화여대 대학원 재학), 박민지(서울시립대 대학원 재학), 장다은(전남대 음악학과 졸업)씨다.

연주 레퍼토리는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쇼팽 '폴로네이즈 Op.53' '스케르초 4번', 라흐마니노프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차이코프스키 '사계', 라벨 '밤의 가스파르' 등이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 다음 공연은 창단 30주년 기념 그랜드콘서트로 오는 5월24일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문의 010-6655-034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불의한 역사 극복 의지 담은 '광주 시집'

### 박관서 시인, 세 번째 시집 '광주의 푸가' 출간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에 맞추어 내려고준 비한 줄시들이지만 주위에서 충분한 일들이 벌어지게에 슬쩍 피했었다. 그리고 독재자도 죽었다.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어쩌면,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만이 아니라, 순전한 자유를"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박관서 시인이 세 번째 시집 '광주의 푸가' (삶창)를 펴냈다.

이번 장작집은 다수의 작품들이 광주에 수렴될 만큼 '광주 시집'이라 해도 무방하다. 시인은 오랫동안 '간이역과 큰 기차역 사이에서 푸른색과 빨간

색의 깃발'로 30년 넘게 살았다. 기차와 역에 기대 살았던 시간 속에서 적잖은 시들이 발효됐을 터다.

"하늘을 나는 그들이 몸에서/ 마음으로 또는 검은 눈빛에서 양 날개로/ 주고받는 말들이 어긋죽지로 짠 스크립들이// 울음으로만 들리는 이유가 보이는구나/(중략) 그래, 독재자 그대가 떠나면서 돌아와/ 모든 게 나의 죄가 되어서야//기막힌 말로 온몸의 뼈를 씻는 그대가/ 보이는구나, 삼철이면 지워지는// 맑은 하늘이 맑은 하늘이 되는구나"

위 표제지 '광주의 푸가'는 시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학술자인 '독재자'가 죽어서야

## 맑은 하늘이 보이는 현실을

읽고 있다. 독재자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인고의 삶을 살아야했던 날들을 돌아본다. '맑은 하늘'에는 불의한 역사에 대한 극복과 성찰의 의미가 투영돼 있다.

강형철 시인은 "광주는 박관서에 이르러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실감되며 확장되고 있다"며 "누름과 한으로 저머진 시의 깃발로 '세상이라는 큰 역사(驛車)'에 떨리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정음 출신 박관서 시인은 현재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철도원 일기', '기차 아래 사랑법'을 펴냈다. /박성현 기자 skypark@

## 조선대, 안도현 시인 '시를 읽는 마음' 11일 강연

조선대학교재난인문학연구소장인 안도현 시인은 오는 11일 오후 4시 안도현(사진) 시인을 초청해 인문학 강좌를 진행한다. 안 시인은 이날 '시를 읽는 마음'을 주제로 강연한다.

안 시인은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돼 문단에 등단했다. 그는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강조한 '내에게 묻는다'를 비롯해 '연탄 한 장', '반쯤 깨진 연탄' 등의 시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강연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일반시민을 비롯해 조선대 전 구성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08-508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